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눈 깜짝할 새에 변해버린 주변의
광경을 둘러보았다.

웰턴 경 당신... 제법 쓸만한 마도구 감정사였군.

불과 수 분 전까지도 사람의 손길이 닿았던 것 같이
느껴질만큼 말끔한 상태의 마도구들이 즐비한 책상과
진열장.

그리고 마법서적이 뽁뽁이 꽃힌 책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어느 마법사의 공방.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숨겨진 마법공방이 있다던 그 소
문은 사실인 듯하다.

내 어머니가 주인일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고요 속에 잠들어있었다.

왼손을 들어 중지를 내려다본다.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는 보랏빛 영혼석이 마치 어머니의 눈동자 같았다.

뻥하긴 하지만 예상대로 손에 끼는 것이 이 반지의 마법식을 발동시키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뛰어난 마법사이셨던 어머니가 아주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잘 고안한 것이라 하는게 맞겠다.

이걸 전생에 쓸 수 있었다면 신성청의 지하감옥으로 붙잡혀 가는 대신 아예 잠적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허나 과거의 나는 이 반지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은화가 필요해 어머니가 남긴 이 귀중한 마도구를 팔아버리고 말았다.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더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나는 이 마법공방을 탐색해나가기 시작했다.

이 짧은 순간에 모든 활용도를 다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앞으로 여기서 수련하면 되겠어. 내가 원하는 만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의 목표를 위해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이 원래부터 내게 주어져 있었음을 한 번의 죽음을 거치고 나서야 알았다.

본래라면 후회로 남았어야 할 이 기회가 내게 다시 주어진 것에 안도감이 찾아왔다.

어쩌면 엘라이안님은 정말로 내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마친 나는 게르마누를 떠올리곤 다시 이 마법공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공방의 한 쪽 벽에 시계같은 둥근 원판이 걸린 문이 보였다.

정확히 4등분 된 원판의 각 영역에 응접실, 묘지, 하수

도, ??? 라고 적혀있다.

어째 응접실을 제외하면 장소들이 공작가의 귀부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들이었지만.

이런 아공간을 만든 어머니가 직접 지정한 출구들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저 원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

원판 아래의 출입문 앞쪽에는 둥근 원형의 카펫이 깔려있었다.

나는 그 위에 올라서서 왼쪽 중지에 낀 반지를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 돌려보았다.

직관이 이끄는 대로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는 확실했다.

- 철컹!...

출입문 위의 원판이 돌아가면서 '응접실'이란 글자가
정중앙의 '출구'글자 아래에 위치한 것이다.

오... 어머니는 이런 직관적인 설계를 좋아했구나.

원하는 출구를 설정한 나는 문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쥐고 돌렸다.

그러자 열리는 문틈으로 어머니의 응접실의 풍경이 펼쳐

쳐졌다.

카스텔 성으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이다.

- 철격.

등 뒤에서 닫힌 문을 향해 뒤돌아서니 응접실의 한 쪽 벽에 길운을 바라는 의미로 완벽한 대칭으로 만들어둔 두 개의 문이 보였다.

그 중 왼쪽의 문으로 나는 걸어나왔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들르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그날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겠지요.

* * *

그날 저녁 성으로 돌아온 게르마누는 내 잠자리 수발을 들러 와서 미행불은 놈들을 따돌리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 놈들 보란 듯이 계속 길거리 음식을 사먹고 다녔다고? 하하하하!"

고개를 끄덕이는 게르마누 녀석.

생긴 건 야수 그 자체였지만 이렇게 보니 제법 귀여운 면이 있었다.

은화 한 뼉을 동화로 바꾸면 대략 100개에 달하는 금액인데 그걸 길거리 음식을 사먹느라 다 썼을 정도면 게르마누 녀석은 힘 뿐만 아니라 식성 또한 장사인 게 분명했다.

역시... 이 녀석을 고르길 잘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녀석의 속사정도 한 번 들어봐야겠어. 보통의 운명을 가진 자는 아닐 듯 해.

잘 주무시라는 인사와 함께 방의 모든 불을 끄고 물러나는 게르마누를 보며 나는 내 책상 서랍 안에 자물쇠를 걸어 보관해둔 마법공방으로 통하는 반지를 꺼내 들었다.

오늘의 수련을 바로 시작해볼까.

다시 왼쪽 중지예 반지를 끼자 이번에도 아까 전과 같이 마법공방으로 이어지는 마력통로가 열렸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돌풍과 함께 순식간에 도착한 마법공방에서 나는 이제는 익숙한 듯 기도를 올릴 자리를 찾았다.

여기면 괜찮을 것 같다.

불이 꺼진 촛대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쳐진 한 가운데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빈 공간

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턱 앞에 깎지킨 손을 모은 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얼마전 처음 여신과 감응한 이래로 제대로 몰입하여 기도를 올려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오랜만에 드리는 기도였지만, 어머니가 마련한 나만의 공간에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도 몰랐다.

오로지 내쉬고 들이마시는 호흡과 여신의 의지를 향해 뿔뿔히 날이 세워지며 한 계단씩 올라 다가가는 내 정신의 고양감만이 존재하는 무아지경 속에서.

나는 가슴에 한이 되어 맺혔던 못다이룬 성기사로서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을 누렸다.

내 지난 생까지 모두 합하여 16년만에 다시 느껴보는
이 지고(至高)의 쾌락.

그 어떤 비싼 술보다도 향기롭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미녀보다도 더 취하게 하는 승화하는 정신의 품안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의... 아...'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나의 기도가 저 먼곳의 의지에
닿는 익숙한 감각이 든다.

허나 이미 오늘 겪은 여러 사건들로 정신력이 소모된
채로 시작했던 기도라 한 계단 더 오르는 것이 불가함
을 나는 알았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대로만 하면 한 일주일 뒤면 한 단계 더 깊이 여신의 의지와 감응할 수 있겠어.

기도를 멈춘 나는 다시 마법공방을 빠져나와 도착한 어머니의 응접실에서 나온 뒤 적당히 동선을 숨기기 위해 화장실을 들린다음 내 침실로 향했다.

그 새벽의 기도와 함께 나의 완벽한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낮에는 가문에서 진행하는 검술수련과 귀족가의 자제로서 갖춰야할 교양수업들을 듣고 밤이 되면 홀로 마법공방으로 가서 신성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도에 몰입했다.

검술수련을 시작한 뒤 흘러가던 시간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사라져 없어지는 시간들에 피로가 누적되긴 했

지만.

나는 이렇게 마음껏 수련할 수 있는 이 시절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알기에 오히려 즐거웠다.

물론 그동안 나는 형제들에겐 눈에 띄지 않으려 부던히도 애를 썼다.

검술수련 중 약식으로 대련을 할 때면 셋 중에서 제일 강한 여섯째에겐 일방적으로 져졌고.

일곱째에겐 간신히 지는 것처럼 상대해줬으며.

여덟째에겐 간발의 차로 이긴 듯이 연출하면서 가끔씩은 여덟째가 간신히 이기는 상황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과거엔 온통 내게로 향했던 스승님의 관심이

이번엔 여섯째에게 쓸리는 것을 지켜봐야하는 건 못내 속이 쓰렸다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는 법이니 대의를 위해 참았다.

어차피 한 번 다 배워본 것들이기에 마법공방에서 기도에 들기 전 정신을 깨우는 몸풀기로 이전에 체득했던 검술들을 한 번씩 다시 시도하다보니 금세 손에 다시 익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수련을 거듭하면서 어머니가 남긴 이 마법공방은 마치 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으로 제작된 듯이 검술과 신성력, 심지어는 마법까지도 수련하기에 알맞은 완벽한 수련장이었다.

마법공간 한쪽에 세워진 목각인형의 가슴에 달린 문을 열고 그 안에 책장의 서적을 골라 넣으면 그 서적이 담고 있는 검법이나 신성력으로 발현되는 기적 혹은 마법을 목각인형이 재현해준다.

그러니 혼자 있음에도 마치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나는 오류를 빠르게 수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수련할 수 있었다.

특히 여신의 권능을 빌려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기적들은 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비밀이 궁금했지만... 어머니 만큼의 마법지식을 갖추지 못한 나로서는 그저 상상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설마 이름없는 떠돌이 성기사의 영혼이라도 여기 붙여넣은 건가?... 에이 말도 안 돼. 이건 좀 상상이 지나쳤어.

그렇게 주야장천 수련에 몰입한 지 6일 째가 되던 날.

아침부터 게르마누가 문안인사와 함께 그동안 맡겨두

었던 일의 보고를 올렸다.

결국 유모는 성에서 쫓겨난 날 생사르트의 높은 성벽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성문수비대에게 확인해도 출입대장에 유모의 이름은 없었다고 하며.

성문 밖의 먼 마을에 있는 소작농인 남편과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을 찾아가도 유모가 돌아온 적은 없었다고 했다.

정실부인 아르카나가 자신의 계략이 더 밝혀지기 전에 완전히 꼬리를 잘라버린 것이었다.

날 길러낸 여인의 결말치고는 비극적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어찌해도 그녀는 죽을 운명이기도 했다.

그 날도 어김없이 낮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저녁을 먹고난 뒤 나는 습관처럼 마법공방에 들어갔다.

이젠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만큼 이 공간이 내겐 친숙하고 또 아늑해졌다.

자 그럼 오늘도 검술수련 1시간 한 다음에 바로 기도로 넘어가보자.

계속 연습 중이었던 『 카스텔류 검의 예술 - 중급편 』이라 적힌 롱소드 검법서를 목각인형의 가슴의 뚜껑을 열고 넣었다.

그러자 오른손에 목검이 부착된 목각 인형이 덜그럭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과 합을 주고받으며 검법서에 나온 동작들을 직접 받아내보고 또 녀석에게 직접 가해본다.

스승님 아래서 함께 수련중인 형제들은 같은 검법서의 초급편을 떼고 있는 중이었지만 초급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내 영혼에 새겨진 것들이라 한 번 죽 훑어보며 따라해본 뒤로는 이틀만에 떼버렸다.

중급부터는 보다 실전성 있는 검법들이 소개되는 데 이를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자세만 잡아보는 걸로는 그때의 모든 감각을 그대로 불러일으키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자세를 아는 검법들이라도 일일이 이 목각인형과 검을 맞대면서 당시의 기억을 모든 것이 초기화된 어린 몸에 새겨넣는 중이었다.

- 따악!

목각인형의 검을 칼등으로 받아내면서 자연스럽게 가로로 기울인 검을 회전시켜 녀석의 관자놀이를 후려쳤다.

흥미롭게도 이 목각인형은 실제 사람이었다면 전투불능에 해당하는 공격을 받으면 작동이 중지되도록 마법이 걸려있었다.

쓰러진 목각인형의 가슴을 열고 그 안에 든 검법서를 꺼내 책장에 꽂아넣는다.

잠깐 호흡을 고르며 휴식을 취한 나는 곧바로 반원형으로 배열된 촛대 사이에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에 몰입했다.

이제 곧 신성력의 깊이가 막 개방된 1성의 경지에서 2성으로 오를 참이어서 인지 오늘은 유달리 더 한 점

의 티끌도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집중력이 발휘됐다.

이제 곧...

그때 그 동안 웅얼거리듯 흐릿하게 들려오던 신의 음성이 또렷하게 뇌리에 박힌다.

'내 깊은 어둠을 견딜 수 있겠는가. 신성한 화신의 아들아.'

깊은... 어둠?...

순간 나는 내가 들은 음성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의심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절대로 말이 되서는 안될 말이 내 안에 낮게 그르렁거리며 울리고.

심장에서부터 작열하는 고통이 전신으로 뻗어나갔다.

"끄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인두에 지쳐지는 듯 피부 안 쪽에서부터 까맣게 타들어간 자국들이 문신처럼 몸 곳곳에 새겨진다.

'네 신이 너를 버린 것이 두려운가?'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묻는 그 음성은 여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악마다. 이것은.

여신의 의지를 쫓아 기도하던 나는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이되어 악마의 속삭임에 몸부림친다.

'아무리 부정하고 벗어나려 버둥쳐도. 네 놈은 이 깊은 어둠에 삼켜진다.'

대륙 최고의 성기사가문 카스텔의 막내아들이 그 심장
부에서 악마에 들렸다.

구불구불한 악마의 각인에 물어뜯기는 지옥의 고통 속
에서.

허리를 뒤로 꺾고 내민 가슴을 떨며 울부짖는 그 가련
한 공자를.

"꼬어어어억!!!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과연 어느 누가 구원할 것인가.

- 4. 길 잃은 어린양 (1), 끝 -